

2018년 10월 31일,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, 이효순 조사.

좌사남(여, 1930년생, 제주시 외도1동)

-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, 제주4·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옛날에 하늘의 별은 해와 달보다 먼저 솟아났고, 해도 둘, 달도 둘이 솟아 낮에는 백성들이 더워 죽었고 밤에는 추워서 죽었다. 천지왕이 궁수를 불러서 천 근 활로 앞에 오는 해를 하나 남기고 뒤에 오는 해를 쏘아서 없앴고, 달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없앴다. 그래서 큰달, 작은달, 초승달, 반달, 윤달을 다 마련했다.

[제보자] 천지왕본풀이엔 헌 거.

[조사자] 예. 말해 주십서.

[제보자] 벨이 몬저 낫거든. 벨이 먼저 낭 동으로 동서대별, 서으로 서서대별, 남방 노인성, 북두대성, 칠운성군 다 벨이 몬여 솟아나고, 해와 둘은 벨보다 말째에 난 거라. 벨보다 말째에 낫인디.

옛날에 해도 둘, 둘도 둘 헤그네 낮이 백성은 죽어죽고 밤이 백성은 곳아 죽었인디, 천지왕 시절에 활 잘 쏘는 이를 천지왕이 불령으네 저 백 근드리 천 근 활 헤그네 앞에 오는 해 하나 생겨동 뒤에 오는 해 하나 쏘고, 앞에 오는 둘 하나 생겨동 뒤에 오는 둘 하나 쏘아당 낫이는 해가 하나, 밤이는 둘이 하나. 대월, 소월이엔 허민 큰둘, 작은둘, 초싱, 반달, 삼 년에 한 번 윤달 드는 거. 그거 다 마련헌 거.

- 핵심어: 천지왕, 벨(별), 해, 둘(달), 활, 낫, 밤, 윤달, 대월, 소월